	베트남(하노이)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 걸 기 소 장
		일 시	2024. 5.

CEPA Insight

- 베트남 전자상거래 고속성장..5대 플랫폼 1분기 매출 27.9억달러 79%↑
- 베트남, '부가세 10%→8% 인하' 연말까지 연장 추진
- 베트남, 제조업 경기 회복세..4월 산업생산지수 전월비 0.8%↑
- SC은행,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 6.7→6% 하향조정

■ 베트남 전자상거래 고속성장..5대 플랫폼 1분기 매출 27.9억달러 79%↑

-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
- 23일 전자상거래 데이터분석업체 메트릭(Metric)의 '1분기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보고서'에 따르면, 쇼피(Shopee)와 틱톡숍(TikTok Shop), 라자다(Lazada), 티끼(Tiki), 센도(Sendo) 등 5대 플랫폼의 총매출이 71조 동(27억9158만달러)으로 전년동기대비 79% 증가했다.
- 같은기간 플랫폼 입점업체수는 약 51만1000개, 총거래건수는 1310만여건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9%, 10% 증가했으며 전체 판매상품수는 7억6600만여개로 무려 83% 급증했다.
- 카테고리별로는 ▲뷰티 ▲홈·라이프스타일 ▲여성패션 등 3개 부문이 매출과 판매량 측면에서 선두를 유지했으며 ▲가전 ▲휴대폰·태블릿 ▲남성패션 등의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두배 넘게 증가하는 등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였다.
- 메트릭은 2분기에도 S/F(여름/가을) 성수기를 맞아 현지 전자상거래시장이 성장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며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총매출이

85조동(33억4203만달러)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.

- 팜 바오 쯡(Pham Bao Trung) 메트릭 영업이사는 “오늘날 전자상거래는 각 소매기업들에게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판매채널로 자리잡았으며, 경제회복에 따라 온라인 소매시장 발전에 확신을 갖는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”고 평가했다.
- 이어 쯡 이사는 “시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, 국내 전자상거래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의 정책 변경,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안, 외국업체와의 경쟁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에대한 대응방안도 염두에 두어야한다”고 밝혔다.
- 이에 따라 쯡 이사는 ▲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상품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익이 하락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▲매출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제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자사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하며 ▲효과적인 전략과 새로운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299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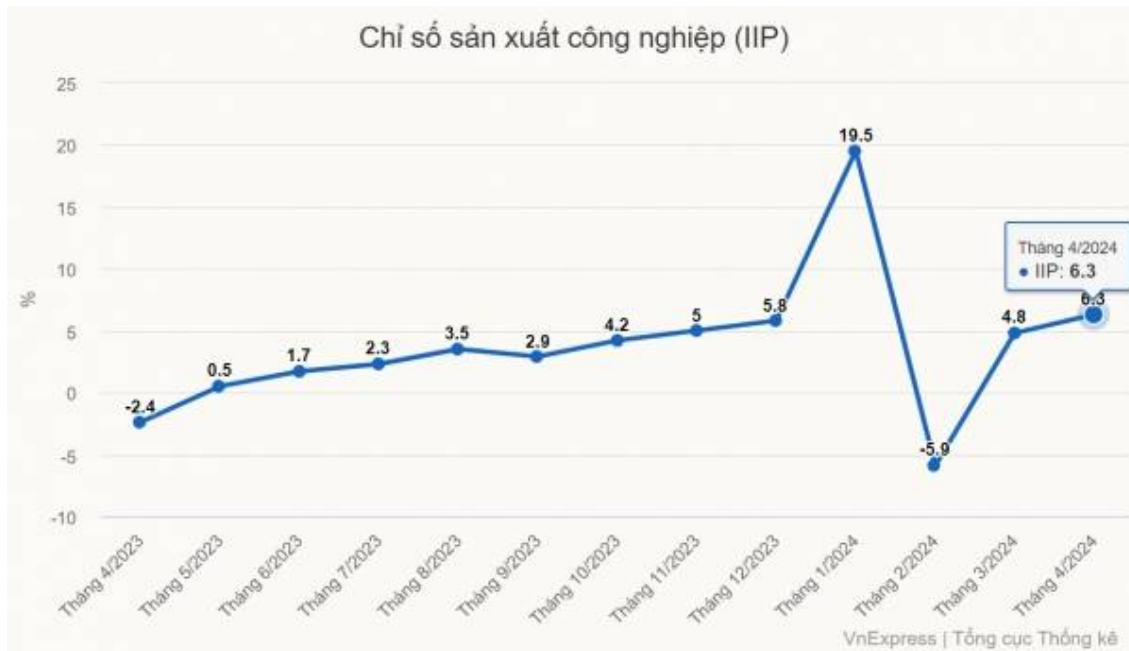
■ 베트남, '부가세 10%→8% 인하' 연말까지 연장 추진

- 베트남이 상반기 종료예정인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-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'부가세 2% 인하 시행 결과보고서'를 국회에 제출했다.
-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가세율 8%가 적용되고 있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업종에 대해 연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의 심의·승인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.

-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적용중인 부가세 2% 한시적 인하 조치(특정 상품 및 서비스업종 제외)의 6개월 연장(2024년 상반기까지)을 승인한 바 있다. 이에 따라 정부의 요청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인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.
- 정부는 “지난해 실제 경제상황을 고려해 각종 세금과 수수료, 토지임대료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산업생산 안정과 경제회복 및 성장에 대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”고 평가했다.
- 그러면서 “그러나 올들어 가게 및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회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2% 인하와 각종 세금 및 수수료, 토지 임대료 인하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부가세 인하 연장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.
-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~2023년 기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았던 경제 및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700조동(276억1885만 달러) 규모 금융지원안을 시행했지만, 올들어 지원규모는 68조동(26억8297만달러)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편 1분기 가게 및 기업의 부가세 감면액은 11조4880억동(4억5326만 달러)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.
- 또한 상반기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23조4880억동(9억2673만달러)으로 추정되며 이를 연말까지 연장할 경우 부족분 24조동(9억4693만달러)이 추가돼 연간 세수 결손액은 47조4880억동(18억7366만달러)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364>

■ 베트남, 제조업 경기 회복세..4월 산업생산지수 전월비 0.8% ↑



-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(IIP)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제조업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- 2일 통계총국(GSO)에 따르면 지난 4월 베트남의 IIP는 전월대비 0.8%, 전년동기대비 6.3% 증가했다. 이에따라 올들어 1~4월 IIP는 전년동기대비 6%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(-2.5%)보다 크게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.
- 이로써 베트남의 IIP는 지난 2월 뗏(Tet 설)연휴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것을 제외하면 1년간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다.
- 올해 1~4월 가공·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6.3% 증가해 전체 IIP 증가분의 5.5%p를 담당했다. 지난달 1일 기준 가공·제조업 종사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.4% 늘었다.
- 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라 올들어 4월까지 전체 수출도 1236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% 늘어났다. 이 가운데 공산품이 87%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84억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7억4000만달러 늘어났다.

- 같은기간 수입은 1152억4000만달러로 15.4% 늘었다. 이중 93.7%는 완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, 이를 감안하면 한동안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한편 VN다이렉트증권(VnDirect 증권코드 VND)은 지난달말 발표한 1분기 거시경제 보고서를 통해 “제조업의 업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, 3월 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49.9로 기준치(50)를 하회한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회복세 판단에 앞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보인다”고 지적했다.
- PMI는 각 기업 구매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업계동향 지표로 50미만은 경기위축, 50이상은 경기확장을 의미한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374>

■ SC은행,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 6.7→6% 하향조정

- 글로벌 IB(투자은행) 스탠다드차타드은행(SC)이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.7%에서 6%로 하향 조정했다.
- SC은행은 24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“당초 전망치를 하회한 1분기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교역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”고 설명했다.
- 앞서 SC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을 6.1%로 전망한 반면, 베트남 통계총국(GSO)는 5.66%(잠정치)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.
- SC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분기별 성장률을 ▲2분기 6.3%→5.3% ▲3분기 7.2%→6% ▲4분기 6.7%로 전망했다.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종전 5.5%에서 4.3%으로 조정됐다.

- SC은행은 중앙은행(SBV)이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3분기까지 재융자율 4.5%를 유지한 뒤 4분기 0.5%(50bp, 1bp는 0.01%p)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.
- 다만 SC은행은 “베트남의 경제는 성장과 투자유치의 주요동력인 교역이 장단기적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소매판매 매출이 1540조동(605억9345만달러)으로 전년동기대비 8.2% 증가하는 등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”고 분석했다.
- 앞서 세계은행(WB)도 “베트남 경제는 수출이 회복되고 소비와 민간 투자가 증가하는 등 둔화기를 거친 뒤 올초부터 긍정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”고 평가한 바있다.
- 팀 리라하판(Tim Leelahaphan) SC은행 태국·베트남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“경제 회복 국면에서 통화정책 지원의 필요성은 점점 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풀이했다.
- 리라하판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향후 통화정책은 대외요인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를 바탕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3.5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325>